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목 차

I. 서론	3
II. 본론	
1. KBS 발전방향 및 현실적 한계	7
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 정립 필요	
나. '고품격 청정 방송지대' 구축을 통한 정체성 확립 필요	
2. KBS의 재정현실 전망 및 수신료 인상 근거의 타당성 검토 ...	10
가. KBS 재정현실 전망 분석	
나. KBS 수신료 인상 근거의 타당성 검토	
3. 공적책무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16
가. KBS가 제시한 공적책무 확대방안	
나.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적정성 검토	
4. 자구노력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28
5.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원금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29
가. EBS의 지원금 확대 요구	
나. EBS의 지원금 확대 요구에 대한 검토	
6. 수신료 금액 재산정 결과	31
III. 결론	
1. 수신료 금액 산정의 적정성	32
2. KBS 재원구조의 적정성 및 수신료 재산정 시점	33
IV. 부대의견	
1. KBS의 지배구조와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34
2. 기타사항 - 채널별 회계분리 도입의 필요성	35

I. 서론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제출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제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로 충당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수신료가 징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현재의 수신료 금액이 적정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수신료 인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미 1990년대에 한국방송공사(KBS)의 필요재정을 수신료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있었고(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보고서, 1994.3), 공영방송 정상화 차원에서 KBS의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를 (상향)조정하여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며(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1999.2), KBS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광고 비중 축소와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2001.10).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와 여론을 반영하여 지난 2007년에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지만 결국 현실화 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으로서 공영방송이 국가나 상업자본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주된 재원은 수신료이어야 하며 이에 걸맞은 수신료가 징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 지,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영방송의 콘텐츠 향상이며, 둘째는 상업광고의 축소 내지 폐지를 위한 재원확보이고, 그 다음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공영방송의 콘텐츠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의 BBC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BBC의 방송프로그램이 최고 수준에 있다는 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의 발전을 논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콘텐츠의 질적 향상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에게는 소외 받는 계층을 대변하고 한 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며, 국민의 교양 및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문화 향유에 따른 불가결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공영방송의 상업광고 문제입니다. 공정성과 창의성을 갖춘 고품질 콘텐츠의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업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을 지양해야 합니다. 운영재원을 방송광고료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할 이유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KBS의 평균 방송광고 수입은 43.9%를 차지합니다. EBS는 17.4%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FT가 14.3%, 독일의 ZDF가 6.5% 수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야간시간대(20:00~익일 06:00)의

광고를 폐지했으며, 향후 광고의 전면 폐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영 방송의 모범이라고 하는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는 상업광고의 편성이 전무합니다.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상업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KBS와 EBS의 공영성 강화를 강조해 왔고, 그 핵심은 상업광고의 축소 내지 폐지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 상업광고의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단계적 축소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적 책무 수행입니다. 난시청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디지털 정보격차의 해소, 재난재해 방송 등의 공적 책무는 공영방송 본연의 의무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소요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공영방송이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사용하는 관계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수신료가 동결된 채로 유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광고 수입으로 인해 KBS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KBS에서 수신료 인상과 연계하여 경영효율화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접근에 방송 외적인 요인이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수신료는 우리나라 방송 전체와 공영방송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영방송은 가공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하며, 수신료는 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II. 본론

1. KBS 발전방향 및 현실적 한계

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 정립 필요

- KBS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과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 실시 등 방송법 제43조에 의거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와 통상적 의미에서의 공영방송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은 KBS에 대해 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 난시청 해소, 그리고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공적 방송서비스의 적극적 제공을 통해 고급 방송문화를 선도하고,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KBS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기술 개발을 주도해 가는 모습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고, KBS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 교육방송과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방송의 실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 그러나, 수신료 수입 비율이 40%대에 불과한 재원구조는 국가기간 방송 및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과제 수행의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구조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의한 공적책무 수행을 저해함과 동시에, 방송광고 수주를

위해 상업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에 나서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KBS 재원구조 】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년평균
수신료 수입	5,246 (38.2%)	5,304 (37.8%)	5,372 (40.4%)	5,468 (41.9%)	5,575 (41.3%)	39.9%
광고 수입	6,537 (47.7%)	6,675 (47.6%)	5,931 (44.6%)	5,326 (40.9%)	5,203 (38.5%)	43.9%
기타 수입	1,940 (14.1%)	2,044 (14.6%)	1,998 (15.0%)	2,244 (17.2%)	2,730 (20.2%)	16.2%
총수입	13,723	14,023	13,301	13,038	13,508	100.0%

(출처 : KBS 수신료 인상안)

나. '고품격 청정 방송지대' 구축을 통한 정체성 확립 필요

- 올해 KBS는 TV방송을 시작한지 50년을 맞음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확실한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KBS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배제된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을 통하여 선진 방송문화를 전파함으로써, 방송시장의 시청률 경쟁 관행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조리·조미되지 않은 방송 내용으로 이념적 편향성이 담기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 하지만, 광고수입 등 상업적 재원 비중이 60%에 가까운 구조 하에서는 시청률에 좌우되지 않는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이 현실적

으로 어렵습니다. KBS가 청정 방송지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재원의 비중을 낮추고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내용은 1999년의 ‘방송개혁위원회’나 2001년 ‘방송정책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그 필요성이 언급되었던 사항입니다.

【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중 수신료 관련사항 : 1999. 2월 】

- KBS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광고를 통해 충당됨으로써, 시청률 경쟁이 불가피해 공익성 실현이 어려우므로, 수신료 금액 조정이 필요
- 조직 효율화와 프로그램의 공익성 제고를 전제로 '01.1월부터 2TV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수신료를 조정
- 방송위원회 산하에 KBS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00년 6월까지 경영진단 및 평가를 수행한 후 수신료 조정안을 제안토록 결정

【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중 수신료 관련사항 : 2001.10월 】

- KBS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광고 비중 축소 및 수신료 인상이 필요
- 현실적으로 수신료의 대폭 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당 기간 동안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
- 광고 형태는 장기적으로 블록광고로 전환하되, 점진적인 수신료 인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2TV 광고를 폐지
- 적절한 수신료 금액 책정을 위해 방송위 산하에 가칭 「수신료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신설,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

2. KBS의 재정현실 전망 및 수신료 인상 근거의 타당성 검토

가. KBS 재정현실 전망 분석

- KBS는 ‘수신료 금액 동결, 광고수입 하락, 재원소요 급증’으로 인해 중기 수지전망 시 막대한 누적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재원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사유로는 방송제작비의 급상승과 디지털 전환비용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KBS 중기 수지전망 - KBS 제시안】 (단위: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 수 입	14,259	14,213	14,095	13,765	14,006	70,339
◦수 신 료	5,648	5,716	5,781	5,844	5,905	28,894
◦광 고	5,930	5,983	5,534	5,386	5,386	28,219
◦기타수입	2,681	2,514	2,780	2,535	2,715	13,226
2. 비 용	13,897	14,059	14,963	15,562	16,397	74,878
3. 당기순손익	362	154	-868	-1,797	-2,391	-4,539

※ 전망기준 : 수신료 금액 및 광고비중 현행 유지, 2012년 디지털전환 완료 예산 포함, 기본적인 공적책무 운영 (이하 “기본운영”) 예산 포함

- 그러나, KBS가 제시한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14년 말까지 4,204명) 및 사업경비 10% 절감 등의 자구노력 방안은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오히려 선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KBS의 자구노력 방안은 기본운영에 따른 중기 수지전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KBS는 5년 간의

수입과 비용을 '1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추정함으로써, 중기 수지 전망 상의 누적손실을 일정 부분 과다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운영에 따른 중기 수지전망에 KBS가 제시한 자구노력 방안을 반영하고, 수입 및 비용을 '10년 실적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추정할 경우, '10년부터 '14년까지의 중기 수지전망 상 누적손익은 종전 4,539억원 적자에서 548억원 흑자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KBS의 수신료 금액 산정방식은 '1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추정 손익계산서의 누적손익 분기점을 추계해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도 손익이 수신료 금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10년도의 실적기준 손익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KBS 중기 수지전망 - 방통위 추정 】 (단위: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 수 입	14,494	14,322	14,251	13,905	14,203	71,175
◦수 신 료	5,689	5,747	5,823	5,897	5,968	29,124
◦광 고	5,886	5,983	5,534	5,386	5,386	28,175
◦기타수입	2,919	2,592	2,894	2,622	2,849	13,876
2. 비 용	14,060	13,254	13,983	14,323	15,007	70,627
3. 당기순손익	434	1,068	268	-418	-804	548

- 수입 추정의 경우, KBS는 향후 수신료 수입을 전망함에 있어 수신료 부과대상 가정용 수상기 대수의 산정기준인 등록률을 과거 10년('00~'09년) 동안의 회귀분석을 통해 향후 5년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가 사용한 회귀분석 방법은 '05~'06년도의 급격한 등록률 하락 추세가 반영됨으로써, '06년 이후 안정적인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최근의 등록률 추세를 잘못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의 등록률 예측방법이 합리성을 가지려면 '05~'06년도의 급격한 등록률 하락이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06년도 이후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을 제외한 최근 추세를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수입, 협찬수입 및 콘텐츠수입 등은 '10년도 실적치를 사용하여 재추정 하였으며, 여기에 앞서 언급한 수신료 수입 재추정분을 합산한 결과, '11~'14년까지 총 601억원의 수입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재추정됩니다.

아울러, 지역 제작시설 확충에 따른 전주 및 제주총국의 기존 구사옥 부지 매각계획이 중기 수지전망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외수입 항목에 추가해 반영하였습니다.

【 수입 재추정 (2011~2014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KBS 추정	검토결과	차이금액
수신료 수입	2,324,527	2,343,612	19,085
광고수입	2,228,938	2,228,938	-
기타수입	898,528	932,317	33,789
사업외 수입	-	7,223	7,223
합 계	5,451,993	5,512,090	60,097

- 비용 추정의 경우, KBS는 '1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매년 소요되는 비용 증가 및 감소요인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10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제작비 등을 재산정한 후 KBS가 제시한 자구노력 방안을 반영한 결과, '11~'14년까지 총 4,414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및 '지역 제작시설 확충'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인정하였으나, 과거 실적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항목은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직원대여금의 경우는 자구노력에 따른 인원감소효과와 직원대여금 상환액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 수준의 증가율만을 인정하였습니다.

【 비용 재추정 (2011~2014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KBS 추정	검토결과	차이금액	손익효과
방송제작비	2,221,347	2,131,892	-89,455	-89,455
시설현대화 등	763,228	723,076	-40,152	-41,914
직원대여금	84,789 ¹⁾	45,283	-39,506	-5,565
자구노력 방안	-	-303,299	-303,299	-303,299
기 타	1,200	-	-1,200	-1,200
합 계	3,070,564	2,596,952	-473,612	-441,433

○ 이러한 결과는 KBS가 자구노력 방안을 시행할 경우, 수신료 인상 없이도 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방송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2014년말 직원대여금의 잔액기준임

나. KBS 수신료 인상 근거의 타당성 검토

- KBS는 자사가 추정한 재정현실을 바탕으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 근거로서 설득력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2년 디지털 전환 완수와 난시청 해소

-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총 7,698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나, 현 재정구조로는 정상적 사업추진이 한계에 봉착

◦방통융합시대 공적 가치와 시청자 권리 보호

- 공익적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정체성 강화, 공적가치 수호 등 필요
-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코리아뷰 구축 추진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과 공익적 책무 확대

- 국제적 기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신뢰, 콘텐츠 품질, 효율성 제고, 위상정립이 필요하나, 왜곡된 자원구조로는 상업적 영향력 배제 어려움

- ▶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수신료 중심의 안정적인 자원구조 위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익적 책무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그 혜택을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함**

- 첫째, 디지털 전환 비용의 경우, 이미 ‘가. KBS 재정현실 전망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확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지상파 무료 다채널 서비스인 코리아뷰는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멀티캐스팅) 방송정책이 마련된 이후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현 단계에서 KBS가 구상하고 있는 모델 도입을 인상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또한, 국제적 경영컨설팅 기업인 BCG는 KBS가 세계적인 공영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실현 계획의 핵심으로 콘텐츠의 품질 제고를 제안했습니다.

KBS의 의뢰에 의해 4개월여의 기간동안 실시된 이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BCG는 KBS가 영국 BBC 수준으로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4년 간 1.3조원의 방송제작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이 중 월 3,500원의 수신료 금액에 따른 790억원(5.8%)만을 반영했습니다.

- 아울러, BCG는 경영컨설팅 보고서에서 KBS가 상업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구조를 갖추기 위해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 금액을 6,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에서 왜곡된 재원구조를 개선하고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적책임과 기능을 유지·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방송광고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수신료 중심의 적정 수준으로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경영컨설팅 결과와 차이가 있는 3,500원을 인상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KBS 이사회 내부 합의 도출에 따른 결과이지만, 경영컨설팅이 이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 BCG는 즉각 추진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로 “수신료 현실화”를 꼽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진정한 공영방송 고려시 6,500원이 적정’을 제안(광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G의 수신료 금액 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00원(광고 폐지), 5,200원(광고 12.3%유지), 4,600원(광고 19.7% 유지) ◦KBS 이사회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 금액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6,500원(광고 폐지), 2안 4,600원(광고 19.7% 유지)

3. 공적채무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KBS의 공적채무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는 금번 수신료 인상안이 국민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의 금액 인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및 중복 또는 유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제외하고, 공적채무에 부합하는 예산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 KBS가 제시한 공적채무 확대방안

- KBS는 “5천만의 디지털 세상 KBS가 열겠습니다”라는 목표 아래 3대 핵심과제로 1. 디지털세상의 중심 KBS, 2. 시청자 신뢰의 중심 KBS, 3. 고품질 콘텐츠의 중심 KBS를 내세우며, 다음과 같은 10대 공적채무 확대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KBS의 10대 공적채무 확대방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KBS 안		
	기본운영	공적채무	합 계
①디지털KBS → 디지털전환 완수	546,950	-	546,950
②난시청 100% 해소	12,263	104,843	117,106
③무료 보편 서비스 강화	-	113,397	113,397
④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2,020	5,149	7,169
⑤사회적 약자 배려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7,385	39,867	47,252
⑥고품격콘텐츠중심 글로벌베스트 KBS	17,000	271,950	288,950
⑦공영성 강화, 상업성 배제	비예산 사업		
⑧지역방송 획기적 강화	725	64,501	65,226
⑨재난재해 방송 등 국가위기관리기능 강화	-	19,315	19,315
⑩세계 속 한류 확산	6,480	44,470	50,950
합 계	592,823	663,492	1,256,315

- KBS는 공적채무 확대방안으로 '10~'14년까지 총 1조 2,563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5,928억원은 수신료 인상 전 기본운영 시 소요될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6,635억원은 수신료 인상 후 추가적으로 수행할 공적채무 확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공적채무 확대방안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와 함께, 중증장애인(1급~3급, 대상자 : 77만명) 및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대상자 : 19만명)의 면제신설, EBS 지원확대, 자구노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적채무 확대방안으로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총 4,850억원의 추가 누적손실을 예상하였습니다.

<공적채무 확대방안에 따른 수지 영향>

(단위: 백만원)

구 분	항 목	당기순손익영향
공적채무확대 (비용증가)	①디지털 KBS → 디지털 전환 완수	기본운영에 포함
	②난시청 100% 해소	- 98,166
	③무료 보편 서비스 강화	- 104,020
	④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 5,149
	⑤사회적 약자 배려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 32,853
	⑥고품격 콘텐츠 중심 글로벌베스트 KBS	- 261,636
	⑧지역방송 획기적 강화	- 63,410
	⑨재난재해 방송 등 국가위기관리 기능 강화	- 17,156
	⑩세계속 한류 확산	- 43,376
	공적채무확대 (수입감소)	⑤사회적 약자 배려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중 “소외계층 수신료 면제 확대”
EBS지원확대	수신료 수입 중 현행 3% → 5%	- 82,284
KBS 자구노력	인건비 추가절감('14년말 4,204명), 사업경비 절감(10%)	381,307
합 계		- 484,957

나.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적정성 검토

□ 『과제 1』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전환 완수(5,469.5억원)

○ KBS는 2012년 디지털 전환 완수 및 지상파 DMB, DTV 데이터 방송 전국 확대를 위해 총 5,46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제시하였으며, 특히 2012년 디지털 전환 완수를 위해 제작시설의 HD 전환에 2,704억원, DTV 방송망 확장에 1,563억원, 동시방송 운용에 267억원, 노후시설 교체에 744억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지난 '00년 이후 KBS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09년까지 총 4,35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12년까지 4,344억원이 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이후인 '13년과 '14년에도 HD 시설의 노후 장비 교체 비용 등으로 934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KBS의 디지털 전환 실적 및 향후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제작 시설	송신 시설	동시방송 운용유지	아날로그 철거	합계
2000년~2009년	3,004	833	517	-	4,354
2010년	528	286	88	-	902
2011년	961	463	89	-	1,513
2012년	1,215	624	90	-	1,929
소계	2,704	1,373	267		4,344
2013년	324	78	-	124	526
2014년	364	44	-	-	408
소계	688	122	-	124	934
총계	6,396	2,328	784	124	9,632

-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시가 '12년 12월 31일 04시로 정해짐에 따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09년 전까지 실적이 낮은 것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KBS가 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은 법에서 정한 시한까지 완료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특히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타 방송사에 대해 모범적인 디지털 전환의지와 실적을 보여야 하므로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은 KBS가 제시한 금액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KBS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본운영 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과제 2』 난시청 100% 해소(1,171억원)

- KBS는 디지털방송 난시청 가구인 약 71만가구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성을 활용한 절대 난시청 및 자연적 난시청 해소사업에 530.9억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국부적 난시청 해소사업에 145.5억원, 공시청시설 복구사업에 494.66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 난시청 해소사업은 KBS가 방송법 제44조에 따라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적책무에 해당하므로 난시청 관련 공적책무 확대예산은 대부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동 예산 중 기본운영 예산에 편성된 일부 예산(12억원)이 '디지털 시청100% 재단'의 출연금 320억원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KBS와 협의하여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과제3』 무료 보편 서비스 강화(1,134억원)

- KBS는 무료 보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상파 무료 다채널서비스인 Koreaview 구축(1,006억원), 인터넷·모바일 KBS전용 Player(가칭 ‘K-player’) 개발(128억원)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 Koreaview 서비스는 TV 1개 채널로 HD채널(1개), SD채널(3개), 라디오, 쌍방향 등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동 서비스를 통해 KBS1·2TV, EBS, 뉴스·문화·오락·스포츠 등 12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고자 하며, KBS는 '11년에 수도권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12년에 본 방송을 실시할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상파 다채널 디지털 방송서비스(멀티캐스팅) 정책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이므로 동 사업예산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또한, BBC의 i-Player를 벤치마킹한 통합 온라인 Player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성격이나 예산항목이 『과제5』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의 세부사업인 “소외계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므로, 동 예산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과제4』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71.7억원)

- KBS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가 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공영성 평가지표 개발(10.2억원), 프로그램 신뢰도 강화(34억원), 수신료 사후평가 강화(7.5억원), 의제설정 기능 강화(5억원), 저널리즘 및 윤리교육 강화(15억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영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공정성 평가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품질 평가를 위한 연구 조사활동, 사회통합 등 중장기 의제설정을 위한 국민 자문단 운영 등의 예산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수신료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수신료 사후평가 강화(7.5억원) 사업의 경우, KBS는 수신료 수입 계좌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여 수신료로 사용된 지출내역의 적정성 등을 매년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 사업²⁾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나 감사원에 의한 감사 등과의 차별성이 없으며,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동 예산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또한, KBS는 저널리즘 및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KBS 저널리즘 대학을 개설하고 저널리즘 포럼을 정례화 하는 등 윤리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 직원의 일상적인 교육예산과 차별성이 없으므로 동 예산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과제5』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472.5억원)
 - KBS는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수신료 면제대상자 이외에 중증 장애인(1급~3급) 면제(대상자 77만명) 및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면제(대상자 19만명)를 신설하여 소외계층 수신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KBS는 동 사업을 통해 채널별 또는 자원별 회계를 분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장애인 방송 및 소외 계층 배려 확대(144억원), 소외계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134.5억원), 국민참여형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75억원), 사회공헌확대(119억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 중 장애인 방송 및 소외 계층 배려 확대를 위해 장애인 대상 라디오 방송인 '사랑의 소리방송'(3라디오)의 방송구역을 확대하고 소수자 배려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일부 사업의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거나³⁾,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업과의 관련성이 낮으므로⁴⁾ 인정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 『과제6』 고품격 콘텐츠 중심, 글로벌 베스트 KBS(2,889.5억원)

○ KBS는 고품격 콘텐츠 중심, 글로벌 베스트 KBS가 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 '12년까지 1:2TV HD 편성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 (1,249억원), 보도/교양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790억원), 고품격 대형 프로그램 기획 강화(250억원),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51억원), 방송인력 전문화 및 재교육 강화(162.5억원), 기술연구 개발 및 시설 투자 확대방안(387억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KBS는 수신료 인상안 제출에 앞서 BCG로부터 향후 4년간 1.3조원의 제작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았으며, BCG가 제시한 1.3조원의 5.8%인 790억원을 보도/교양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에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3) 4년마다 개최되는 장애인기능올림픽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 있음

4) 연예인 등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KBS 봉사단」 운영, 「시청자 나눔장터」 개최, 방송 전시관 건립 등

- 즉, KBS는 현재의 보도/교양 프로그램 연간 제작비 2,387억원의 약 10%인 263억원을 증액하되, BCG의 제작비 연도별 투입 의견을 감안하여 '11년(88억원), '12년(176억원), '13년(263억원), '14년(263억원) 총 79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KBS는 수신료 인상안인 3,500원의 수지 규모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액을 사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 KBS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투자계획을 제시하지 않고⁵⁾ 연간 투자 규모만 제시하고 있어, 향후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KBS는 향후 보도/교양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면밀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 KBS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저개발국 초청 및 세미나 개최 비용 등 일부 예산은 고품격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와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예산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 방송인력 전문화 및 재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중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비용(100억원)도 과거 실적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예산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방통위는 790억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요청하였으나, KBS는 수신료 인상 후에 프로그램별 제작비 세부항목 등 구체적 사용내역을 정할 것이라고 답변함

□ 『과제7』 공영성 강화, 상업성 배제(비예산사업)

- KBS는 2TV와 2FM·2라디오의 선정성을 배제하는 방안으로서 예능 프로그램의 선정성 배제를 위해 <소재와 표현에 관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출연자 윤리지침에 따라 출연자가 각종 비위사실이나 범법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와 책무를 저버렸을 경우, 방송활동과 복귀를 제한하는 예능 프로그램 윤리지침도 만들어 시행 중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작 가이드라인이나 윤리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제작 시스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제정된 가이드라인이나 윤리지침이 제작 일선 부서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실제 제작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제8』 지역방송 획기적 강화(652.3억원)

- KBS는 지역방송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지역방송 편성비율 확대 및 경쟁력 강화(493.5억원), 지역국 사옥 무료개방 및 문화행사 지원 확대(58.8억원), 경기·인천 로컬방송 확대 실시(76.6억원), 라디오 2FM의 전국방송 실시(23.4억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지역방송 편성비율 확대방안은 자체 제작프로그램을 확대

하고 지역 간 공동제작 및 로컬 우수 프로그램 전국 편성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⁶⁾하였습니다.

○ 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확대하고 지역국의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투자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지역별 문화행사를 지원하거나 지역 시청자 미디어 창작교육 지원 사업은 지역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2FM 전국방송 실시를 위한 투자는 주파수 배정 등 방송법상 허가와 관련된 정책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과제9』 재난재해 방송 등 국가위기 관리 기능 강화(193.2억원)

○ KBS는 재난·재해 방송 등 국가위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재난·재해 방송 서비스 확대(146.3억원), 재난정보 온라인·뉴미디어 서비스 확대(29.4억원), 재난방송 24시간 상황실 및 전담팀 운용(17.5억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재난·재해 방송 등 국가위기 관리 기능강화 사업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중요한 공적책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 특히, 주요 재난 발생지역인 거문도, 거제도(태풍 길목), 삼척 임

6) 1TV 총국기준 자체편성비율을 2010년도 9.4%에서 2014년도 15%까지 확대

원항(지진해일 측정) 등에 무인카메라 추가로 설치⁷⁾하는 사업 등은 재난·재해 주관방송사로서 국민의 재난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난정보 온라인·뉴미디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인터넷, IPTV, DMB)등을 활용한 재난방송 강화 사업은 재난 지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과제10』 세계 속 한류 확산(509.5억원)

- KBS는 세계 속 한류 확산을 위해 KBS World 해외 진출확대(308.5억원),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 강화(126억원), 문화예술 해외 공연 지속 추진(75억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특파원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시각의 국제 뉴스를 강화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보도프로그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 다만, 특파원 확대가 해당국 뉴스의 현지 재전송이 아닌, 실제 취재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KBS World 해외진출 확대는 한국의 가치를 국제 사회에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우리 문화를 널리 보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7) 현재 서울 남산타워, 독도 경비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27개소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6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제출

- 우리 문화의 해외홍보 및 보급과 관련된 KBS World의 확대는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해외방송과 관련된 정책방안이 마련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의 편성이나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KBS가 제시한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의 해외 연주회 확대 및 해외교포를 위한 특별 공연 이벤트 확대는 이벤트성 행사로 보여지므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소결) 이와 같이 각 과제별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당초 KBS가 제시한 공적책무 확대방안 예산 총 6,635억원 중 1,812억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각 과제별 삭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 : 억원)	KBS案			방통위 검토案	방통위 삭감액
	기본 운영	공적 책무	합계		
①디지털 전환 완수	5,470	-	5,470	5,470	-
②난시청 100% 해소	123	1,048	1,171	1,159	12
③무료 보편 서비스 강화	-	1,134	1,134	-	1,134
④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20	52	72	52	20
⑤사회적약자 배려/디지털정보격차 해소	74	399	473	354	119
⑥고품격콘텐츠 중심 글로벌베스트 KBS	170	2,719	2,889	2,810	79
⑦공영성 강화, 상업성 배제	-	-	-	-	-
⑧지역방송 획기적 강화	7	645	652	564	88
⑨재난재해방송 등 국가위기관리기능 강화	-	193	193	193	-
⑩세계 속 한류 확산	65	445	510	150	360
합 계	5,929	6,635	12,564	10,752	1,812

4. 자구노력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KBS는 현재의 인력을 2014년 말까지 4,204명으로 감축함으로써, 인건비 비중을 선진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KBS 인건비 비중 축소계획 】

(2014년 기준)

I 인건비 비중 세계 대표 공영방송 수준으로 대폭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2009년) → 30%이하(2014년) 목표 추진 - 3,500원시(→29.2%) 					
					* BBC (28%), NHK (27%)
구분 (수신료)	총비용(억) (a)	인건비(억) (b)	인원(명)	인건비비율 (b/ a)	참고
3,500원	16,984	4,951	4,204	29.2%	수신료 2,500원 → 3,500원 광고비중 38.5% → 33.7%

- 그러나, 수신료 재산정에 따른 KBS의 인건비성 경비 비중은 여전히 30%를 상회하고 있어 해외 주요 공영방송사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며, 인건비성 경비 비중의 저하가 수신료 인상에 따른 전체 비용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도 있으므로 KBS의 추가적인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5.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원금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EBS의 지원금 확대 요구

- EBS는 공적재원보다 상업재원이 많은 비정상적인 재원구조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비용을 산정한 결과, 월 97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⁸⁾하였습니다.
- 한편, KBS는 수신료를 월 3,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신료 배분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즉, KBS는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EBS에게 월 70원을 지원하였으나, 수신료가 3,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EBS에게 월 166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신료 인상안에 포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나. EBS의 지원금 확대 요구에 대한 검토

- EBS의 수신료 배분비율은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을 통해 결정될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EBS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맞는 적절한 수신료 배분비율을 마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 EBS의 재원구조를 볼 때, 수신료 등의 공적재원의 비중이 28.8%

8) 다만, KBS의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감안하여 수신료 부담을 최소화 하더라도, EBS 수신료로 최소 500원은 확보되어야 하며 부족분 470원은 방송발전기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수신료 비중은 8.8%로 재원구조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 따라서, EBS의 수신료 배분비율은 비정상적인 재원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EBS 재원 비중 변화 >

(단위: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년 평균
공적재원	446	427	531	533	555	28.8%
- 수신료	148	149	151	153	156	8.8%
- 기타	298	278	380	380	399	20.0%
상업재원	1,218	1,184	1,176	1,222	1,356	71.2%
- 광고	328	336	310	256	263	17.4%
- 기타	890	848	866	966	1,093	53.8%
총 수입	1,664	1,611	1,707	1,755	1,911	100%

- EBS는 수신료 배분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어린이 시간대 등 광고 폐지 등을 통해 상업광고 수입을 50% 축소하고, VOD·AOD 서비스 무료화 및 중학프리미엄사업의 무료화 등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대국민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수신료 금액 재산정 결과

-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운영에 따른 '14년까지의 중기 수지전망 부분에 '인건비 추가 절감 및 사업경비 10% 절감' 등 KBS가 제시하고 있는 자구노력 방안을 반영하고, 수입 및 비용을 '10년 실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추정한 후, 공적책무 확대방안 중 일부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계산할 경우, 기본운영에 따른 중기 수지 전망은 당초 KBS가 전망한 것과 달리 2014년까지 548억원의 누적이익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KBS가 공적책무 확대방안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예산 총 6,635억원 가운데 1,800억원의 예산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따라서, KBS는 기본운영에 따른 중기 수지전망 상의 당기순손실과 공적책무 확대방안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을 합하여 2014년까지 총 9,389억원의 적자가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재산정한 결과 적자 금액은 6,28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III. 결론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의 적정성

- 우리 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전환 완수와 시청자 권리 보호,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KBS가 제시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한편, 우리 위원회의 검토내용에 대해 KBS는 산정기준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며, 글로벌 콘텐츠 확대 등 공적책무 강화를 제시하면서 시급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KBS 수신료 인상안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경우에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KBS 발전방향 지향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KBS 재원구조의 적정성 및 수신료 재산정 시점

- KBS는 월 3,500원으로 수신료 금액을 인상할 경우, '09년도 광고 수입 비중 38.5%가 '14년에 33.7%까지 낮아진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총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공영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광고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광고 폐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업적 재원의 축소 내지 폐지와 같은 적극적 노력에 따라 광고 수입 등 KBS의 상업적 재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KBS의 공영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는 수신료 금액 재산정 시점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금번 결정한 수신료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은 KBS가 누적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2014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4년에 있을 수신료 금액 재산정 시에는 방송시장에 대한 분석과 시청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광고의 폐지 또는 추가 축소가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안정적인 수입구조 마련을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IV. 부대의견

1. KBS의 지배구조와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10.11.19)한 직후 채택한 발표문에서, “KBS 이사회는 이번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법제도적 절차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의 구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KBS 지배구조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도 KBS 지배구조와 법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KBS 이사회의 ‘KBS 지배구조 및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요청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국회에서 KBS 지배구조와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해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2. 기타사항 - 채널별 회계분리 도입의 필요성

- KBS는 현재 수신료, 광고 및 기타수입 등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2개의 TV채널과 7개의 라디오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채널별 소요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널별로 회계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BS는 인적·물적 자원을 매체별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함에 따라 채널별 회계를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공영방송사로 평가 받고 있는 BBC의 경우에도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별 회계분리를 통해 채널별로 연간 사용된 비용을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채널별 방송 콘텐츠의 원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방송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신료 납부 주체인 국민에게 KBS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채널의 구체적인 운영 실적 등을 공개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